

어머님을 추모하는 시

어머님을 통하여 예수님 사랑, 그 영광의 비밀을 알게하시니 감사합니다.

40 년전, 어머님, 서대문사거리 지나가실 때마다, 순복음중앙교회에 들어가
눈물로 기도하시던, 그 모습, 눈에 선합니다.

30 년전, 추운 바람 불던날, 영락중학교, 골고다언덕을 숨에 차서오르면서,
영락없이 영락걸렸다고 투덜대던 나에게,
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로 받아야한다고 가르쳐주신 그 음성,
지금도 나의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.

20 년전, 미군으로 하와이로 배속되는 것 사람들이 안된다고 말할 때,
나도 세상논리대로 포기하려고 할 때, 어머님... 나에게 믿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.
온 우주만물을 지으시고, 운행하시는 크신 하나님께서, 너의 조그마한 소원하나
들어주지 못하겠느냐는 말씀, 그 말씀이 역사하여 기적을 이루고, 지금까지 큰
용기와 능력 부어주십니다.

10 년전, 아버님 하늘나라가실 때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
하나님만 의지하라고...

바로 몇주전, 하늘나라 앞에 두고, 어머님 나에게 침묵으로 말씀하셨습니다.
약해진 그 모습에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.
그 의연하신 모습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았습니다.
위기에 처한 시간에, 담대한 승리의 믿음을 부어주심 감사하며,
어머님 손 부여잡고, 기도했습니다.

어머님 살아계실 때, 마지막 병석에서
어머님께서 하나님자녀의 진정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.
무조건, 어머님 손잡고 기도할 때 성령하나님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사
감사의 눈물이 어머님 그리고, 나의 마음에 넘쳐흘렀습니다.

오늘, 예수님 품안에 들어가신 모습이 너무나 평안하게 눈에 선합니다.
그 평안한 모습속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, 승리의 자녀 안고서, 기뻐하시는 모습
더욱더 눈에 선합니다.

죄에 사슬에 묶인 영혼, 쓰러져 좌절된 사람,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자들을
위하여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. 이것이 나를 위한 어머님의 기도제목이었습니다.

아들 선한규 올림.
2005 년 6 월 21 일